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1:7-8.....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6:9-15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3) 이 안에 너 있다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주기도문 8 - 다가오는 고향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기본기 Basic Skil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스윙하는 모습, 혹은 공 던지는 모습을 보며 "폼 좋다"는 말을 합니다. 폼은 기본자세를 말합니다. 그 자세가 좋으면 '폼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은 연습입니다. 얼마 전, 친구 목사가 다녀갔습니다. 골프를 치고 싶다고 해서,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골프장에 따라 나갔습니다. 골프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에 격려차 나가 시타를 휘둘렀던 경험밖에 없는 제가 '드넓은 녹색 잔디라도 보러 가자'라는 말에 따라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웬걸? 골프장에 간 것은 저에게 엄청난 체력애의 도전이었습니다. 18홀을 따라다니면서 저의 체력은 완전히 방전되어, 그 후 2-3일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 지난 1년, 매주 우리 베델 목회진들과 트레일을 걸으며 체력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골프 치는 친구에게 체력에서 완전히 밀린 것입니다.

역시 기본 체력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잘 쓰는 말이 "체력도 영력이다"입니다. 말씀과 기도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관리도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교역자를 뽑을 때, 체력 테스트를 하고 목회자를 선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저희 교회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겠냐는 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기본 체력에 도전을 받은 저는 우리 목회진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트레일을 걷자고 제안했고,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에 나와 한 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 년 전보다 베델 목회진들은 확실히 건강해졌습니다. "체력도 영력이다" 맞습니다! 말씀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체력이 받쳐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성도님들을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조절하고,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최상의 상태로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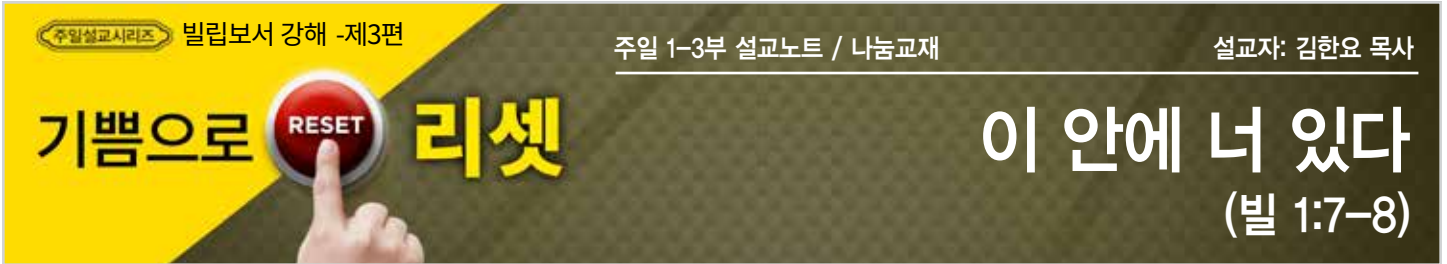
우리의 최선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 정신 건강과 생명까지도 철저한 헌신으로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기본기에 충실하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는 영적 기본기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에 꾸준한 기본 체력을 유지하여 베델의 예배와 사역에 '최선'을 드리기 원합니다. 탄탄한 영적 기본기로, 멋진 폼으로 골프 티샷 250 야드를 날리듯,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녹색 페어웨이에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ost important thing in sports is basic skill. We look at people's swing or how they throw a ball, and comment "good form". Form speaks of basic posture. If the posture is good, we say it is "good form". Then comes the practice. A pastor friend came to visit not too long ago. He wanted to play golf. Wanting to show hospitality, I went with him to a golf course. My only experience at golf was when I swung a club for the first time at start of our church's missions fundraising golf tournament. I was enticed by my friend's words 'come and see the vast green grass'. But, what? This trip to a golf course turned out to be a great physical challenge for me. My body was spent going through 18 holes. I suffered for 2-3 days afterward. I thought I would be fine since I trail walk with the pastoral staff every week. But I lost this battle of physical stamina to my golfer friend.

It was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basic physical stamina. I often say with our pastoral staff "stamina is also spiritual strength". Not only are the Word and prayer spiritual strength but taking care of our body and health is also spiritual work. I have heard about a church that requires a physical test before hiring a pastor. Initially I laughed about it, but it is something to consider for our church. It is quite convincing to state, if you are not able to care for your body, how can you care for your congregation.

After being challenged by basic physical stamina, I suggested to our pastoral staff to trail walk twice a week instead of once. Since last week, we have started the trail walking twice a week, early in the morning for about an hour. What I know for sure is that all our pastoral staff are much healthier than a year ago. "Stamina is also spiritual strength" is right. Because of increased physical stamina, we can focus and prepare for messages. We must stay healthy to care for our congregation. I am doing my best to "give my body as a living sacrifice to the Lord" by managing my food intake, maintaining my body condition, and staying in top shape daily.

With spiritual devotion, I vow to serve God, who deserves our best, with our hearts, will, emotion, and life. Dear beloved Bethel saints! Let's be diligent in the basic skills. We want to give our 'very best' in Bethel worship and ministry with basic skills of daily Word and prayer while diligently maintaining physical stamina in the era of living 100 years. With strong spiritual basic skills, like hitting 250 yards with a good golf form, may our devotion to God fly through the sky and land on a vast green fairway.



1. 자주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용하기



2.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늘 생각했나 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참고/ 살전 2:7, 고후 7:2-3)

- 7절 "...너희가 ()에 있음이며"
-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너희 무리를 ()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3.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온갖 고난에도 동참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7절b)

4.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음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 7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 참여한 자가 됨이라"

5. 은혜를 받으면, 즉시로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8절)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이유와 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참고/ 롬 1:11, 살전 3:6, 딤후 1:4, C. S. Lewis "Mere Christianity")

■ 적용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베델 온라인 안경학교

36명, 이제 준비 완료!!

쿼런틴 동안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이 필요했던 그때 셀식구들의 권유로 온라인 안경 사역 훈련을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력검사 기초인 눈의 구조를 시작으로 굴절 이상 시력, 근시, 원시, 난시, 돋보기 시력 검사, 눈 질환 그리고 눈 검사 등에 필요한 수업내용들과 실습, 질문과 답변을 통한 모임을 통해 눈과 안경에 관련된 지식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3-5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 수업을 캔버스로 시청한 후 각 조에서 나온 질문들을 토대로 전체 모임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다른 분들의 질문을 들어 보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안경이 필요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모두 열심히 가르치시고 배우고 토론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자유롭게 선교를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지에서 안경 혜택을 받기 힘든 현지인들이 얼마나 안경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신뢰를 얻어 교

회로 인도하게 되는 간증들도 들으면서 사역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강사님들과 뜨거운 열정으로 임했던 훈련생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더 밝은 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 생명의 빛을 보고 환해질 삶을 생각하며 알찬 지식과 영적으로 풍부했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훈련을 마치고 난 주일부터 매주 다섯 분씩 돌아가며 실습 키트를 대여하여 대면 훈련을 받지 못해 이론만으로는 아쉬웠던 부분을 집에서 직접 검안 세트를 보며 배운 것을 복습하고 가족들을 돌아가며 시력 교정 검사를 해주기도 하는 실습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 안경 사역 훈련을 받으며 학구열을 불태웠던 36명의 훈련생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시 열릴 선교지의 안경 사역을 통해 낯선 땅에서 밝은 눈과 영을 받으실 주님의 예비되신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계속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길 원합니다.

박선영 집사



코비드 특별사역

1. 코비드 특별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요?

작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될 때 모두가 염려했던 New Normal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베델 특별사역입니다. 2021년 베델 이웃사랑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사역팀들인 구제, 양로병원, 입양아, 포스트케어, 홀리스, 생활강좌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코비드 특별사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구제 사역만으로는 손길이 미칠 수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교회내 구제 사역팀과 함께 베델 이웃돕기 Project 일환으로 섬기게 됩니다. 더불어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함에

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방법에 귀를 기울이며 베델 구제 사역의 최적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3.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번 사역팀을 맡게 되었지만, 저의 부족함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사역이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4. 코비드 특별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베델의 이웃 돕기 Project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만나게

될 때, 특히 믿지 않던 분들이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민 교회로서 성장해 온 베델의 규모 만큼이나 이번 사역의 동력이나 범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쓰시길 소망합니다.

5.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베델 이웃 사랑 프로젝트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팀장님께 늘 감사드리며 베델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려고 합니다. 주께서 펼쳐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 앞에 베델 모두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 문의: 배진용 집사 (951)858-6330



받은 것 모두 드릴게요

저희 셀은 이제 갓 신혼이라는 딱지를 뗀, 그렇지만 여전히 풋풋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돌로스 셀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도 어느덧 두 가정이나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기쁨을 아이들을 통해 더해가고자 하는 저희 셀 식구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셀을 시작할 때가 떠오릅니다.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싶어 매주 한 명씩 인생 그래프를 통해 진솔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의 깊이를 더하고 싶어 찬양과 기도로 셀 모임을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셀 식구들을 한 가정씩 심방하기도 하고, 저희 집으로 초대하며 교제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가족같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이 줄었지만, 그 기간 저희 셀은 성경 1독에 성공했습니다. 또 온라인 셀모임을 통해 신앙 안에서 연결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교제가 그리울 때는 공원에서도 만나 조금

씩 예전의 모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주 김한요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등장했듯 저희 셀 이름인 '돌로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부부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이 셀을 시작하며 결단한 대로 먼저는 저희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 셀 식구들이 예수님의 종 된 자로서 예수님과 교회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각자의 달란트와 비전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

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베소서 4장 1절-3절)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은송 집사

■ ■ 인생 그래프를 나누면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깊이를 더해가며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 ■ ■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요즘,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매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특수 부대를 전역한 예비역들이 서로 자신의 부대 이름을 걸고 경쟁하

며, 어떤 팀이 서바이벌 미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지를 겨루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체격과 체력이 모두 다르지만, 무엇보다 각자가 속해 있던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으로 최선을 다해 경쟁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요즘 인기가 많고 제가 좋아하는 특전사 출신의 박 군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등장하여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미 제대하고 군생활을 떠난 사 람들이라지만, 소속감이라는 것은 그들을 팀으로 하나 되어 뭉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집콕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저는 가끔 제 큰 딸 헤빈이와 늦은 저녁에 자전거를 타곤 합니다. 제 딸은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저도 딱히 대화도 없이 자전거만 타는 것이 무료하기도 해서 예배 시간이 자주 부르던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송이 좋아서 이 찬송을 무한 반복으로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

곤 합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신이 나고 힘도 솟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있으면 강철 부대의 부대원들처럼 마치 내가 처한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 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소속감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는 동안 나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내가 속한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가야 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전승윤 집사

양육반 간증

이제야 주께 고백하는 말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동네 교회에 몇 번 간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성경 구절을 성경책에서 찾은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통성 기도

하는 날이면 눈물 콧물 흘러면서 "부모님의 말씀 잘 듣게 해 주시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종교 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2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를 만나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은 했지만 믿음은 없었던 저는 이번 양육반을 신청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배우면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았으나 양육반을 하도록 이끄신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현재 미국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것에 맞게 가르쳐 주신 리더 집사님께서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교훈 같은 지식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며 나의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한 신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양육반 훈련을 통해 더 발전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리더 노근식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사님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왕석 집사



양육반 모집 광고를 듣고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만 하다가 친한 언니의 권유로 가볍게 결정했지만, '일대일' 양육이라는 부담과 7살, 3살, 1살인 세 아들의 엄마

인 내가 과연 이 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앞섰습니다. 아이들 자는 시간인 토요일 새벽을 선택하여 시작된 양육반은 코로나 팬데믹 중이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어 저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인 저는 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지식이 전부였고,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준비된 베델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후,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신 한국의 시아버님이 몇 개월에서 일 년밖에 남지 않으셨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희 부부는 너무나 힘들었으나 양육반 리더 권사님과 여러 목사님의 기도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시아버님을 위해 양육반 리더 권사님께서 전도 폭발팀과의 만남을 추천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저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저의 무지함이 부끄러웠지만, 성경과 필독서를 읽으며,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나누는 양육반 시간을 두근거림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반 훈련도 받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지현 집사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양육반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셀식구를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양육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도 해야 셀식구에게 권유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쳤기 때문에 굳이 양육반을 할 이유를 느끼지 않았으나, 새로운 교회에서는 모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부담이 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셀식구를 위해 시작하게 된 양육반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와 같은 영적 거듭남과 신유의 체험,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해 주시며 본질적인 갈급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고 삶에서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자유함으로 양육반을 통해 기초부터 훈련하시고, 리셋! "새로고침"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양육반의 리더로 섬겨 주신 한현미 권사님을 통해 성경 통독을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깨닫고 말씀 중심의 삶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현숙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수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수채플: 서찬석 목사
 예수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준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경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BYM 고등부 제자 훈련 Road to Emmaus

농구 경기에서 코치는 경기 내내 사이드라인에 서서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지시를 내립니다.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실수, 모든 식사 및 모든 순간을 관찰하여,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전략에 따라 경기하도록 이끅니다. 때로는 격렬한 고함을 지르며 육체적으로 지칠 때까지 몰아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주는 격려의 연설과 꼭 필요한 휴식을 위해 뒤로 물러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즉, 선수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자들과 함께 걷고 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단 뒤에서 강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이드라인에 서서 쉴 새 없이 제자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직접 경기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이는 선수 겸 코치셨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복음 24:32)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기간 중 BYM 고등부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Road to Emmaus"의 주제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제자 훈련의 목표는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코치시기에,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많은 학생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엠마오'에서 '엠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여름, 6월 둘째 주부터 8주간 진행되는 제자 훈련에 베델의 고등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은혜를 누리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bethelunited.com/forms (신청 마감: 6월 6일)

▶일시/장소: 6월 13일부터 8주간, 매주 주일 오후 1시-2시, 교회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예배 봉사자

강단꽃(6월) | 6/6: 이영옥, 한동희, 황장은 6/13: 송상희, 정경애, 최종철 6/20: 김학남, 박경철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명)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주일 현장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1-4부)는 제한된 인원 안에서 현장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목요일 저녁 8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 성인 및 예살 예배 신청: checkin.bkc.org

— 교회학교 예배(유아-고등부) 신청: checkin.bkc.org/school

*부서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베델 수요 프로젝트** 6월 9일(수) 오전 10시, 베델의 수요 프로젝트 "카타콤 기도회 Again"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팬데믹 중에도 베델의 제자훈련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는 6월 13일(주일) 3부 예배에 제자반, 양육반, 바이블클럽, BAM 훈련, 전도폭발훈련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세요.

— 수료자와 양육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식 후, 코트 야드 Photo Wall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 수료자는 카페에서 음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 **제8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1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5월 16일(주일)~7월 4일(주일)

문의: 김교식 집사 scholarship@bkc.org

◆ **장학 특별헌금** 부모 세대로 겪지 못했던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교식 집사 (949) 812-1423

◆ **다음 세대를 위한 "베델 클래식컬 아카데미" 등록과 설명회** 베델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클래식컬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8월 23일 개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첫째는 Kindergarten부터 5학년 까지 모집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가 오늘 (6월 6일)에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6월 6일(주일) 오후 1시, 유치부 예배실(구, 식당)

6월 6일(주일) 오후 5시: Zoom으로 *Zoom 링크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온라인 등록: <https://forms.bkc.org/PrivateSchool/>

문의: Jamie Kim 전도사 Bethelclassical@gmail.com, 강수민 (949)303-3535

◆ **예배 안내팀 봉사자 모집** 예배팀에서 영광스러운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안내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복음을 위한 예배팀 사역을 위해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집 분야: 주일(1부, 2부, 3부), FD팀(1부, 2부, 3부), 토요 헬스바 안내팀

문의: 김응진 집사 (213)215-4977, 이광수 집사 (714)595-4902

Bethel Announcements

◆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 (코스타리카/온두라스 편)** 코스타리카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와 온두라스 이동철, 이순미 선교사를 각각 현장 미팅과 Zoom으로 만나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참가방법: 코스타리카 6월 10일(목) 저녁 6시-7시, 비전채플 현장 미팅

온두라스 6월 11일(금) 저녁 7시 30분-8시 30분, Zo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문의: 홈페이지 등록,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예살 새가족 환영회** 오늘 주일(6일) 오후 4시에 예살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예살을 찾아온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맛있는 도시락과 축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장소: 6월 6일(주일) 오후 4시, 유치부 예배실(구, 식당)

문의: 김유미 전도사 (714)900-1253

◆ **BYM 고등부 제자 훈련 RTE (Road to Emmaus)** 고등부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는 6월 둘째 주부터 8주간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신앙 성장을 위해 많은 자녀들이 신청하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bethe1united.com/forms (신청 마감: 6월 6일)

일시/장소: 6월 13일부터 8주간, 오후 1시-2시 매주 주일, 교회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분들을 찾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베델 한국학교 여름 성인반(온라인) 등록** 베델 한국학교가 성인을 위한 여름학기 한국어반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기본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등록 마감: 7월 7일(수)

기간: 7월 11일-9월 12일(주일반-10주 과정), 7월 14일-9월 15일(수요반-10주 과정)

대상 및 등록비: 9학년 이상의 성인, \$190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축하해주세요**

강엔젤라 집사와 윤성문 형제의 결혼식이 6월 5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박병규 성도님(박재영 집사의 부친, 김선민 집사의 시부)께서 6월 3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하영주 성도님(하태형 집사의 부친, 신유경 집사의 시부)께서 6월 3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기쁨으로



리셋

You Are in Here With Me

(Philippians 1:7–8)

1. Is there someone you think of often?

Apply to Life



2. Paul must have thought about the believers in Philippi constantly. How is his heart for them expressed? (Ref: 1 Thess 2:7, 2 Cor 7:2-3)

- v. 7: "... I have you in my ()"
- v. 8: "God can testify () all of you with the () of Christ Jesus."

3. How can you tell that the members of Philippi church were one with Paul sharing in all the hardships he faced? (v. 7b)

4. How does Paul refer to the believers in Philippi? Feel in the blank below.

- v. 7: "... all of you share in God's () with me."

5. When we receive God's grace, we immediately feel that we are at one with those others who also received such grace from God. Paul said that such love for them was with the () of Christ Jesus. (v. 8) Let us reflect on the reason and the power of our similar love for fellow believers. (Ref: Rom 1:11, 1 Thess 3:6, 2 Tim 1:4, C.S. Lewis, "Mere Christianity")